

여성 담당층 관점에서의 <초공·이공·삼공본풀이>의 문학-사상의 의미망

신 연 우*

〈차례〉

1. 머리말
2. 여성 주인공의 고난과 극복 양상
3. 제기되는 현실과 그 인식
4. 설화적 요소의 의의
5. 철학적 의미망의 포착
6. 맺음말

<국문초록>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의 세 본풀이가 왜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지 해명이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답하기가 난감하다. 우선 가능한대로 세 본풀이의 연관성을 모색해보는 것은 시도만으로도 의의가 있다. 우선 이 본풀이들의 담당층이 여성이라는 점을 떠올릴 수 있다. 주된 구연자인 여성과 주된 관중인 여성들은 의례와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곳 속에서지만, 본풀이의 이야기문학으로서의 구실에도 참여했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고난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정리해보자. 검은장아기는 여성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한다. 원강아미는 장자집에 자신을 팔 때와 장자의 요구를 거절할 때 자신의 능동성을 보인다. 노가단풍 아끼씨는 수동적이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만 하여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지 않고 고난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수동적이지만 한 여성, 부분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 자기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여성, 이 세 본풀이는 이러한 세 가지 여성의 태도를 차례로 제시한다.

주인공들의 이러한 현실 인식 차이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노가단풍 아끼씨는 현실 앞에 未分인 의식 상태를 보여준다. 원강아미는 객관적인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감은장아기는 현실을 극복하는 자아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현실을 대하는 여성의 세 가지 모습 또는 여성을 바라보는 세상의 세 가지 시각을 제시한다. 첫째는 현실이 너무 크고 막강해서 자아 개인의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도 없고 대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 따라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 대답이 원강아미처럼 현실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인 가장 좋고 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강아미는 학대를 당하고 죽게 된다. 무엇이 해결이란 말인가? 합리적 인식이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다. 어차피 합리적인 해결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면 감은장아기처럼 자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한 방법이다. 실제로 그런 적극적인 삶의 방식으로 놀라운 업적을 이룬 여성들이 있다. 여성이 자신의 잠재된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초공 이공 삼공본풀이>는 일정하게 삶의 방법을 제시해준다. 우주와 세계를 구성하는 보다 질서가 있다는 큰 틀 속에서,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실세계를 냉정하게 인식하면서, 동시에 자아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갖는 것이 그것이다. 종교적이면서 현실적인, 현실적이면서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비약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원리가 이들 서사시로 구현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는 나아가 조선조의 쟁점이었던 리기철학과 맞물리기도 한다는 점을 살폈다. 지상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초월적 존재의 원리에 기대는 <초공본풀이>와 이황의 주리론, 지상의 문제는 지상의 문제로 대립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사회 규범으로서의 리를 제시하는 이이이

철학처럼 원강아미와 장자가 대결하고 원론적인 해결이 주어져서 기대를 어긋나지 않게 하는 <이공본풀이>, 초월적 원리나 사회적 규범 대신 자아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표면에 내세우는 <삼공본풀이>와 서경덕이나 최한기의 주기론이 상당한 정도로 닮아 있음을 해명했다.

핵심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여성담당층, 현실인식, 리기철학

1. 머리말

제주도 큰 곳에는 열 편이 넘는 일반신 본풀이가 있다.¹⁾ 이들은 명칭이 주로 인물이나 기능과 관련 있고 서로간의 연관성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셋만은 그렇지 않고 향렬이 일정해서 하나의 셋트처럼 여겨진다. 제주도 큰곳의 예능보유자인 이중춘 심방은 “초공은 신불휘라 하고, 이공은 꽃불휘라 하고, 삼공은 전상풀이다 이렇게 해서, 초공, 이공, 삼공이라 한다.”²⁾고 말해서 다른 본풀이들과 달리 이 셋만 따로 이렇게 불리는 점을 지적했다. 안사인 심방도 ‘초공은 신빨리, 이공은 꽃빨리, 삼공은 전상드리’가 된다고 했다.³⁾

현용준은 ‘전상’을 ‘평상시와 달리 음주 도박 절도 등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마음’⁴⁾이라고 해설하였으나, 이것은 이공맞이에서 말하는 전상

1)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에는 ‘1천지왕본풀이, 2삼승할망본풀이, 3마누라본풀이, 4초공본풀이, 5이공본풀이, 6삼공본풀이, 7차사본풀이, 8맹감본풀이, 9지장본풀이, 10세경본풀이, 11,문진본풀이, 12칠성본풀이’ 등이 자료로 올라 있다.

2) 이중춘 구송본 초공본풀이 서두에 이렇게 말했다.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 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13면.

3)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60면.

4) 같은 책, 167면 주석 8).

의 의미인 듯 하다. <삼공본풀이> 들어가는 말미에서 “활헝기도 전상 글헝기도 전상 상업 농업 해업헝기도 전상입네다.”(167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전생 정도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⁵⁾ <이공>과 <삼공>에서 전상의 의미가 다른 것이다. <이공맞이>에서는 전상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길다. 또 <삼공본풀이>에서 말하는 전생도 본풀이 내용과 견주어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이수자는 전상을 운명 또는 팔자의 의미로 보았다.⁶⁾ 전상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여하튼 <이공맞이>도 <삼공맞이>도 전상을 쫓아내는 의례로 되어 있는 것도 전상이 본풀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걸 말해준다.

이런 점들은 이들 세 본풀이를 하나로 묶어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이들이 왜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지 해명이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답하기가 난감하다. 우선은 이들 차례가 큰굿의 구성이나 질서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큰굿 열두거리를 종합 연구한 이수자의 연구에서도 그 연관성에 대한 해명은 없다.⁷⁾ 그러나 모든 해답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우선 가능한대로 세 본풀이의 연관성을 모색해보는 것은 시도만으로도 의의가 있다. 우선 이 본풀이들의 담당층이 여성이라는 점을 떠올릴 수 있다. 주된 구연자인 여성과 주된 관중인 여성들은 의례와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굿 속에서만, 본풀이의 이야기문학으로서의 구실에도 참여했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주근은 <세경본풀이>를 예로 들면서 굿판은 신화의 문학적 감상의 시간이 되며, “굿판에는 주로 부녀자들이 모이는지라, 이 청중 부녀자들의 心琴은 장고의 리듬을 타고 이 땀의 문학의 삼매경을 헤매게 되며, 혹은 손

5) 현승환은 삼공본풀이를 전상신의 내력담이면서 의례로 보아 이 설화가 빈부 흥망 행불행은 여자의 타고난 복에 달려있으며 또한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운명관이 내재해 있다고 하였다. 현승환, 「삼공본풀이의 전승의식」, 『탐라문화』 13호, 탐라문화연구소, 1993, 31~50면. 또한 이에 대한 논란은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214~215면 참조.

6)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215면.

7) 같은 책, 145~306면.

백치고, 혹은 한숨을 쉬며, 혹은 끼득끼득 웃기도 하며 흐뭇해한다.”⁸⁾ 고 지적하였다. 특히 불도맞이에서 불리는 이공본풀이는 실제 굿의 기능과 잘 어울리지도 않는다. 이 경우 이공본풀이는 의례로서보다는 풍부한 내용의 사설을 중시하는 “문학적인 흥미를 맛보기 위해서 모인다고 할 수 있다.”⁹⁾

선학의 이와 같은 지적을 교시로 삼아 세 본풀이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여성들의 태도와 지향성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이를 통해 유의미한 문학적 질서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현장의 여성들이 의식하고 있었는가는 답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라도 이와 같은 질서가 그 여성들에게 수용되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있다. 문학은 의식적 경험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이전의 경험도 수용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이용하는 서사 내용은 대부분의 각편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어느 것을 이용해도 무방하겠지만 편의상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에 들어있는 고대중 구연의 본풀이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¹⁰⁾

<초공 이공 삼공본풀이> 각각에 대한 선행연구는 여러 편 있지만 이 셋의 관계를 일관된 관점으로 해명하려는 시도는 아직 없는 것 같다. 이수자는 초공 이공 삼공이 연계성이 있고 큰 곳에서 앞에 놓이는 것으로 보아 이공본풀이가 무속의 시원시에 형성된 무속 고유의 신화라고 하였으나¹¹⁾ 이에 대하여는 반론도 있다.¹²⁾ 앞부분에 놓이기 때문에 초공 이공 삼공이라고 했다면 왜 그 앞의 <천지왕본풀이>나 <생불

8) 장주근, 「제주도 신방의 본풀이」, 『한국의 향토신앙』, 141~144면.
 9)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문학연구』 7, 우리어문학연구회, 1988, 267면.
 10)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92~134면.
 11) 이수자,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문화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제10집, 1993, 13~65면.
 12) 김진영, 「안락국태자전승의 무가적 전개」, 『고소설연구』 제2집, 1996, 423~449면.

할망본풀이>를 ‘초공본풀이’라고 하지 않았는지, 다른 본풀이들은 왜 ‘---공본풀이’라고 하지 않는지도 의문이다. 여신들의 수난이 신직을 얻는 통과의례¹³⁾라는 점을 지적한 것은, 몇 편의 본풀이를 연관 지어 해명한 심치열과 염원희의 연구에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보인다. 심치열은 <삼승할망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를 대상으로 주인공의 행위가 ‘추방담, 시련담, 업무완수’의 연속적 서사진행을 보인다고 하였다.¹⁴⁾ 염원희는 <세경본풀이> <바리공주> <제석본풀이> <이공본풀이> <성주풀이> 등 다섯 개 신화의 여성신들이 직능을 얻기 위해 여성으로서 겪는 수난을 정리했다. 적극적인 극복, 조력자의 도움, 인내의 어머니상, 부수적 존재의 네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¹⁵⁾

본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2장과 3장은 세 본풀이의 문학적 구성과 여성 주인공이 겪는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 방식을 살핀다. 4장은 작품의 차이가 서사문학의 하위 갈래인 신화 전설 민담의 차원으로 확대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을 제안했다. 5장에서는 이 세 가지 본풀이가 문학으로서의 특수성과 함께 삶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로서 철학적인 의미망까지 함의하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지적했다. 그 철학적 틀은 우리 전통 사상인 성리학의 체계와 유사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작업은 제주도의 구비문학인 세 본풀이가 문학 일반으로서의 구실에 충실할 뿐 아니라, 제주도의 여성 청자들에게 부지불식간에 서사문학의 갈래에 대한 인식과, 나아가 철학적 관점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조동일이 말한 바 “문학작품에 나타난 사상이라면 정립되지 않은 채 문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립되지 않은 사상이 정립되어 있는 사상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13) 이수자, 「한국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과 신화적 의미」, 이화어문학회 편, 『우리문학의 여성성·남성성』(고전문학편), 월인, 2001, 28면.

14)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제59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233~262면.

15) 염원희, 「무속신화의 여신 수난과 신 직능의 상관성 연구」, 『한국무속학』 제20집, 한국무속학회, 2010, 328~329면.

이 문학작품의 본질이다.”¹⁶⁾ 그러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상을 체계와 조리를 갖추어 하는 설명이 필요하기에 이와 같은 작업을 한다.¹⁷⁾

2. 여성 주인공의 고난과 극복 양상

<초공본풀이>의 노가단풍 아기씨는 자식 없는 부모가 부처님전에 기자치성을 드려서 얻은 외동딸이다. 열다섯 십오 세가 되었을 때 부모가 먼 길을 떠나고 홀로 남겨졌다가 도술에 능한 주접선성으로 인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임신한다. 이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고 주접선성을 찾아 멀고 험한 여행을 하고 결국 불도 땅에 혼자 내려와 삼맹두를 해산한다. 가난 속에서 아버지 없는 아이 셋을 키워 과거 시험 보러 가게 했으나 삼천선비의 흉계로 죽고만다. 아들들은 아버지를 찾아가 굿법을 배워 어머니를 살려내고 무조신으로 좌정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기씨는 능동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태어날 때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던 것처럼 임신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 집에서 쫓겨나 남편을 찾아갔으나 또 다시 홀로 남겨졌고 어쩔 수 없는 가난한 삶을 견뎌냈다. 삼천선비가 죽이자 아무 저항도 못하고 죽었을 뿐이고 아들들이 살려내자 살아났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철저한 수동성이라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나머지 본풀이를 살펴보자.

<이공본풀이>에서도 기자치성으로 주인공 부부가 태어났고 구덕혼인을 했다. 꽃감관 살려 가는 남편을 원강아미가 임신한 몸으로 따라나선다. 길이 멀어 더 가지 못하고 원강아미의 제안으로 자신을 長子집

16) 조동일, 『한국문학사상사론』(2판), 지식산업사, 1998, 27면.

17) 세 본풀이의 공통점을 국의 절차를 통해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제주도 곳을 잘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지는 못하였다. 제차 속에서 서사가 일치하는 지는 따로 검토해야 할 일이겠으나, 우선은 가능한대로 서사를 분석하여 공통점을 찾고 그 의미를 해명하고자 했다.

중으로 판다. 長子の 동침 요구를 피하며 아들 한락궁이를 낳아 기른다. 뽕박을 견디지 못한 한락궁이는 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나고 장자는 원강아미를 살해한다. 아버지로부터 呪花를 받아와 장자집을 멸족시키고 어머니를 살려내고 신이 된다.

<초공본풀이>와 비교할 때 여기서 두드러지는 점은 여성주인공인 원강아미의 적극성이다.¹⁸⁾ 원강아미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사라도령과 혼인하며, 서천국으로 가다가 못 가게 되자 자신을 장자집에 파는 결단을 내린다. 또한 몇 년이나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장자의 동침요구를 핑계와 이유를 대며 계속 피해나가는 것도 원강아미가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인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노가단풍 아기씨처럼 서천꽃밭으로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원강아미가 집에 그대로 있었다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랬어도 어차피 외부 세계로부터의 고난은 어떻게 해서든 찾아왔을 것이다. 그러면 노가단풍 아기씨처럼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원강아미는 서천꽃밭을 따라가기로 함으로써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그러나 원강아미의 능동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장자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만다. 원강아미의 능동성으로는 자신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야기문학으로서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신이 되어 모진 사육이나 전상을 몰아낸다는 목적론적 儀禮와는 다른 位相을 갖는 것이다. 곳에 참여하는 것은 액을 막고 복을 얻자는 것이지만 이야기문학으로서의 본풀이는 삶에서 마주치는 또 다른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삼공본풀이>의 감은장아기는 윗녘아랫녘 거지 부부에게서 셋째 딸로 태어난다. 부자가 된 뒤 누구 덕에 사느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내 덕이라고 답하여 집에서 쫓겨난다. 부모집은 다시 가난해지고 감은장아기는 마통이 총각을 만나 혼인하고 부자가 되어 안맹한 거지인 부모를

18) 원강아미의 적극적 면모는 강정식도 지적했다(강정식, 앞의 논문, 앞의 책, 287면).

다시 찾아 눈을 뜨게 한다.

감은장아기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어가는 여성이다.¹⁹⁾ 집이 부자가 되어 사는 것도 자기 때문이다. 집에서 쫓겨나 외딴 산속으로 몰려갔지만 거기서 남편을 택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노가단풍 아기씨는 혼인이 된지도 모르고 임신을 했고 원강아미는 아기 때 구덕 혼인을 했던 것에 반해 감은장아기는 다 자란 후에 남편을 자신이 선택한다. 이런 능동성 때문에 황금을 알아볼 수 있고 부모를 다시 살려줄 수 있다.

고난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간단히 재정리해보자. 감은장아기는 여성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한다. 원강아미는 장자집에 자신을 팔 때와 장자의 요구를 거절할 때 자신의 능동성을 보인다. 노가단풍 아기씨는 수동적이기만 하여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지 않고 고난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수동적이기만 한 여성, 부분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 자기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여성, 이 세 본풀이는 이러한 세 가지 여성의 태도를 차례로 제시한다.

3. 제기되는 현실과 그 인식

세 여성 주인공이 맞부딪히는 현실을 다시 생각해보자. 노가단풍 아기씨는 정식 혼인을 하지 못한 채 임신을 하고 집에서 쫓겨난다. 남편을 찾아갔으나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하고 혼자 삼형제를 낳고 어렵게 키운다.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삼천선비에게 죽임을 당하고 뒤에 재생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 속에 죽는 걸로 종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원강아미의 고난도 현실적이다. 남편 없이 가난하게 지내는 하층의

19)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 148, 국어국문학회, 2008, 114면.

여자가 상층의 다른 남자로부터 동침을 강요받는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또한 현실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야기에서는 기지로 위기를 피한 도미의 아내라든가 사또의 코를 물어버린 광대의 아내처럼 현실을 극복하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사례들이 대다수였을 것이다.

여성이 현실에서 처하는 이러한 고난을 잘 알고 있기에 또는 잘 알고 있을수록 감은장아기처럼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하고 개척해나가는 여성에 대한 소망이 컸을 것 같다. 이는 현실에서 오히려 드문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앞의 두 이야기에서 재현되는 현실의 고난을 셋째 이야기에서처럼 여성의 능력으로 해결한다는 여성의 일방적 소망을 차례대로 제시한 것이라고 이해해볼 수 있다.

그러나 세 이야기가 강조하는 부분은 각각 다르다. 세 이야기 중 현실의 고난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이공본풀이>이다. <초공본풀이>의 아기씨의 고난은 현실적인 것이지만 그 과정은 비현실적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임신이 된지도 모르는 아기씨가 부모 앞에 현신하는 장면이나 주접선성을 찾아 황금산으로 먼 여행을 하는 과정은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는 장치이다. 감은장아기는 자기 능력이 있기에 부딪히는 고난이 커도 버겁지 않게 느껴진다.

이에 비해 원강아미와 한락궁이가 당하는 고난은 보다 현실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재현된다. 남편과 함께 먼 길을 떠난 원강아미는 발에는 발병 길에는 길병이 들어 움직일 수 없어 장자 집에 자기를 종으로 팔게 한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집에 종으로 팔리는 것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남편이 떠난 밤에 장자가 와서 “너를 종으로 산 것이 아니라 부름말이나 하고 품쟁이를 하자고 샀노라”(고대중, 117면)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현실적이다. 말을 듣지 않는 이 모자를 장자는 혹독하게 일을 시킨다. 이 장면은 길게 구연된다. ‘남의 종도 사람이라며 광주청눈물은 쥐용아반 연주지듯 비새굴이 울며’(120면) 살게 된 가

혹한 현실은 결국 아들 한락궁이를 이 집에서 도망치게 한다. 이렇게 보면 <이공본풀이>는 현실의 고난을 잘 드러내는 것이 주된 기능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삼공본풀이>는 자아의 능력을 강조하여 자아에 대한 신뢰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누구 덕에 사느냐는 아버지의 질문에 “나 배또롱 아래 선 구뭇이 덕입내다.”(126면)라고 대답하는 장면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점에서 형상화가 잘 되었다. 미운 언니들을 버섯과 팔벌레로 만들어 복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삼형제 중에서 가장 사람이 된 셋째를 선택하는 데에서는 공감을 했을 것이고 남편이 몰라보는 황금덩어리를 찾아주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능력을 구현한 것이다. 황금이 문자 그대로의 황금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를 듣는 누구라도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하게 한다.

<초공본풀이>의 노가단풍 아기씨는 그런 능력도 없고 현실을 타개해나갈 의지도 없다.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은 아들 삼형제이고 높은 곳에 좌정한 주접선성이다. 이 과정은 비현실적으로 제시된다. 머리 위에 손을 세 번 얹는 것으로 포태하고 어머니가 대야 위에 늦젓가락을 얹고 아기씨를 앉게 하여 뱃속의 삼형제가 소랑소랑 앉아 있는 것을 보는 장면이나 남편을 찾아 먼 길을 가는 과정도 초현실적으로 읽힌다.

이러한 체험을 하는 자아의 인식의 차이도 지적할 수 있다. 노가단풍 아기씨는 자신에게 닥친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른다. 임신은 했는지도 모른다. 왜 자기 몸이 붓고 ‘새금새금 연다래나 들금들금 정글리나 먹고’ 싶은지 모른다. 가는 길에 왜 거꾸로 흐르는 물이 있는지 강은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모른다. 왜 죽게 되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는 채 되어가는 사세에 몸을 떠맡기고 있다. 이것은 아기씨의 현실 인식이 未分の 상태임을 말해준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세

계는 자아에게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원강아미는 앞일을 알 수는 없었지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다. 발병 길병으로 더 나아갈 수 없게 되자 “날라근 제인장제네 집이 가서 종으로 풀려두고 갑서.”(116면)라고 하고 장자가 몸을 요구하자 “이 근처는 어찌 흐지 우리 근체는 이 버인 애기가 나서 석덜 열흘 백일 넘어야 몸허락을 흐옵네다.”(117면)라고 한다. 아들이 떠나갈 때는 범벅을 해 주며 아버지를 찾아가게 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까지는 알 수 없었을지라도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태와 그 의미는 파악할 수 있었다.

<삼공본풀이>의 감은장아기는 남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아는 인물이다. 부모가 왜 부자가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감은장아기는 자기 배꼽 아래 검은선 때문임을 안다. 삼형제 중 어떤 남자를 택해야 하는지 알고, 황금을 알아보고, 부모가 眼盲한지도 알아 찾아서 고쳐준다.²⁰⁾

주인공들의 이러한 현실 인식 차이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차이를 일렬로 늘어놓아보자. 노가단풍 아기씨는 현실 앞에 未分인 의식 상태를 보여준다. 원강아미는 객관적인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감은장아기는 현실을 극복하는 자아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현실을 대하는 여성의 세 가지 모습 또는 여성을 바라보는 세상의 세 가지 시각을 제시한다. 첫째는 현실이 너무 크고 막강해서 자아 개인의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도 없고 대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 따라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 대답이 원강아미처럼 현실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인 가장 좋고 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강아

20) 김영숙은 “삼공본풀이가 신적 질서라는 초월적 인식과 인간의 실천적 의지가 적절히 배합되어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영숙, 「삼공본풀이의 서사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44집, 2000, 54면. 감은장아기의 능력이 초월적 양상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는 학대를 당하고 죽게 된다. 무엇이 해결이란 말인가? 합리적 인식이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다. 어차피 합리적인 해결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면 감은장아기처럼 자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한 방법이다. 실제로 그런 적극적인 삶의 방식으로 놀라운 업적을 이룬 여성들이 있다. 여성이 자신의 잠재된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큰곳에 참여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세계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여성의 문제를 일정한 질서를 가진 틀로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면에 일차적으로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의미화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문학적 경험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4. 설화적 요소의 의의

그러나 노가단풍 아기씨의 수동성을 현실에 대한 무기력 또는 무능함으로 보게 되지는 않는다. <초공본풀이>는 아기씨의 수동성을 빌미로 현실을 인식하는 다른 차원의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신화적 해결, 신화적 질서로의 편입이다. 이를 더 이야기해보자.

아기씨는 자신에게 닥친 사태가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사태의 의미나 자신이 견디는 고난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암시도 없다. 세계의 황포 앞에 일방적으로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흔히 전설의 주인공이 당하는 사태이다. 조동일의 이론이 명백히 알려주었듯이, <이인보>전설에서 이인보가 여귀 앞에서 태도와 힘과 인식 능력에서 열세에 있듯이²¹⁾ 아기씨도 그렇다. 그러나 <초공본풀이>는 <이인보>전설과 달리 세계와의 장벽이 공고해지지 않는다.

21)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117면.

그것은 황금산의 주접선성이 배후에서 모든 사태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기씨는 이해할 수 없지만 구연자나 청중은 모두 이해하고 있다. 아기씨가 임신하여 연다래가 먹고 싶었으나 나무가 높아 따지 못하자 모진 광풍이 불어 다래를 떨어뜨려준다는 작은 일로부터 죽은 아기씨를 살리는 방법을 삼맹두에게 알려주는 큰일까지 사실은 모두 주접선성의 관할 아래 있다는 것을 청중은 알고 있다. 즉 전설적 상황을 경험하게 하면서 신화적 해결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약하기만 한 자아에 비해 세계가 얼마나 크고 막강한가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그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저 높이 있는 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함께 느끼게 한다.

그런가하면 <이공본풀이>의 원강아미에게 닥친 현실은 전설적 사태 일 수 있지만 자아가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다른 경우가 되고 있다. 원강아미는 장자의 부당한 요구를 기지를 발휘해 여러 차례 벗어난다. 이는 원강아미와 장자의 다툼임을 보여준다. 장자는 가진자의 힘으로 원강아미를 위협하고 원강아미는 지혜로 위협을 피해나간다. 가진 자는 힘이 있고 못가지고 약한 자는 지혜가 있어 다툼이 지속된다. 이 다툼만으로도 도덕적으로 장자의 부당함이 드러난다. 더욱이 원강아미를 살해함에 미쳐서는 가진 자의 부도덕함에 대한 고발의 성격마저 지니게 된다. 원강아미는 죽어서 패배했지만 장자의 부도덕함을 온천하에 알림으로 도덕적으로 승리한다. 이는 바로 자아와 세계가 상호 우위에서 대결한다고 하는 소설적 요소²²⁾를 함축하고 있다.

물론 <이공본풀이>가 소설이 되지는 않는다. 구연자나 청자는 원강아미가 그대로 죽고 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장자의 집에서 도망간 아

22) 여기서 신화 전설 민담의 개념은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104~124면을 따른다. 신화는 자아와 세계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이르는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고, 전설은 세계의 驚異를 보여주는 것이고, 민담은 자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서사갈래가 이 세 본풀이의 모든 단락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본풀이는 곳의 서사이므로 신성성을 강조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중첩 또는 차이를 보인다.

들 한락궁이가 어떤 해결책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게 되고 꽃감관으로 간 아버지에게서 주화를 얻어와 원강아미를 되살리고 신으로 좌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수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 신화적 해결이 초공본풀이만큼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현실이 신화적 질서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보다 현실에서의 삶이 강한 자와의 싸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 잘 말해준다.²³⁾

<삼공본풀이>는 민담적 요소가 가장 강한 본풀이이다. 감은장아기는 고난에 떨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자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다. 자아의 자신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커서 세계가 자아를 어찌할 수 없다. 이 경우 신화적 해결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제의 해결은 온전히 자아의 능력만으로도 가능하다. 고대중 구연본 말미처럼 “부모 자식이 만나서 흥양케 사옵대다.”(133면) 하고 끝을 맺을 뿐 신으로 좌정한다는 언급조차 없다. 자아에 대한 신뢰는 자아를 신이 되는 경지에까지 올려놓는 비약을 가능하게 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삼공본풀이>는 <내복에 산다> 또는 <마통이> 설화 등과 같은 민담적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는 자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공본풀이>는 <상전 속인 하인> 설화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육지에서는 하인이 왜 그렇게 주인을 괴롭히고 주인 가족을 몰살시키는지에 대한 해명 없이 구연되는 자료가 많은데²⁴⁾ 이공본풀이에서는 그 이유가 주인이 어머니를 능욕하고 죽게 했기 때문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현실의 문제를 또렷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삼공본풀이>는 민담과 동일한 차원으로 자아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반복하고 있는 반면에 <이공본풀이>는 민담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현실 세계의

23) “<이공본>에서는 여성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지만 결국은 수난을 당하고 만다는 점에서 여성수난의 의미가 한층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러한 맥락에서 수용된다. 강정식, 위의 논문, 위의 책, 289면.

24) 신연우, 「상전 속인 하인 설화의 사회성과 신화성」, 『우리 설화의 의미 찾기』, 민속원, 2008, 74~93면.

부도덕한 횡포를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초공본풀이>는 주몽 신화의 영향 아래 있는 신화이다. 그러나 신화의 주인공이 세계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변형되어 있다. 신화의 주인공이면서 전설의 주인공 처럼 세계에 대해 일방적인 열세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도 <초공본풀이>는 세계가 신화적 질서를 가지고 있음을 力說한다.

이는 이들 본풀이들이 신화와 민담을 수용하면서 현실 세계와의 다름이라는 문제를 더욱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민담적 가능성은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 세 본풀이는 현실 인식을 하게 하면서 동시에 자아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삶의 지혜를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공본풀이에서 냉혹한 현실을 명료하게 파악하게 된다. 현실은 자아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한다. 이에 대해 자아는 기지로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 자아가 위축되어서는 그릴 수 없다. <삼공본풀이>에서처럼 자아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자아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으면 현실의 폭력적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일 것이다. 그렇지 않은 현실을 너무도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이 신화적 질서이다. 현실에서의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 보이고 왜 이런 부당함이 존재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이 많다는 경험은 우리를 노가단풍 아기씨와 같은 처지로 느끼게 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조차도 현실의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떤 초월적이고 신화적인 질서가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삶이 지탱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부딪히고 부당하고 부조리한 현실 앞에 꺾이는 일이 많을수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또한 내가 모르는 어떤 초월적인 질서의 작용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을 견뎌내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느낌은 외면적일 뿐 아니라 내면적이기도 하다. 노가단풍 아기씨가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초월적 질서에 이르는 길이라는 종교적 깨

달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초공 이공 삼공본풀이>는 일정하게 삶의 방법을 제시해준다. 우주와 세계를 구성하는 보다 질서가 있다는 큰 틀 속에서,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실세계를 냉정하게 인식하면서, 동시에 자아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갖는 것이 그것이다. 종교적이면서 현실적인, 현실적이면서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비약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원리가 이들 서사시로 구현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 세편의 이야기는 육지에서 각기 따로따로 존재하던 것이다. <초공본풀이>는 <제석본풀이>의 한 유형이고 <이공본풀이>나 <삼공본풀이>도 각기 다른 서사문학으로 전승되었다.²⁵⁾ 이들을 일련의 순서를 갖춘 구성을 하자 여성의 역할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뚜렷해졌다. <제석본풀이>의 제석신 중심의 초점을 <초공본풀이>에서는 삼맹두만이 아니라 노가단풍아기씨도 부각시켜 그 수동적 여성상을 통해 여성의 현실을 자각적으로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이공본풀이>와 <삼공본풀이>를 통해 여성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특히 <삼공본풀이>를 통해 여성의 창조적 능력을 제시하였다. 감은장아가 자신이 복이 여성의 성기로 대변되는 여성성에 있음을 보인 것은 그 점을 뚜렷하게 형상화한 것이다.²⁶⁾ 그러나 무엇보다 제주도 여성의 창조적 능력이 잘 드러난 것은 바로 이들 세 편의 서사시를 한 자리에 모아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여성의 삶을 반성적으로 사유하게 한 그 자체에 있다.

25) 초이삼공 본풀이가 육지의 설화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원래 제주도 큰굿 속의 신화로 창조된 것이었고 이것이 육지의 설화로 재현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가령 이공본풀이에 대하여 이수자, 앞의 논문에서는 제주도굿 선행설을 주장했다. 서대석, 장주근, 강정식 등 대다수의 학자들은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본고도 후자의 견해를 따른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고를 벗어나므로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

26) 허남춘, 앞의 논문, 앞의 책, 148면

5. 철학적 의미망의 포착

제주도 큰곳을 담당하는 이들이나 참관하는 이들이 이러한 점까지 생각하면서 곳을 감상했겠는가 질문한다면, 이들 본풀이는 그 정도를 넘어서 생각보다 더 조직적으로 세계를 보는 틀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고 싶다.

<초공본풀이>는 지상의 노가단풍 아기씨와 초월적인 주접선성을 대립시키고 있다. 아기씨는 자신이 스스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기씨가 태어나고 임신하고 삼뎡두를 낳고 죽고 되살아나는 것은 모두 그 주접선성의 초월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지상에서의 문제들은 지상에서 일어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힘의 조종을 받는다. 이러한 인식은 현실에서 파편적이고 무의미하게 생각되는 일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원에서 보면 모두 연결되어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는 세계인식을 보여준다. 우연적이고 불합리해 보이는 사태들이 사실은 합리를 넘어서 있는 초합리의 커다란 질서의 한 부분임을 알게 한다. 우주적 질서 안에 자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인식은 개인의 협소함을 벗어나게 하고 보다 안정적인 삶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공본풀이>는 지상에서 생기는 문젯거리를 실감나게 제시하고 있다. 자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강한자의 횡포와 이를 벗어나려는 자아의 노력을 날카롭게 의식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원강아미의 힘이 아니다. 한락궁이와 하늘의 남편의 도움이 있어서 복수가 이루어지고 원강아미는 소생한다. 이는 지상에서의 싸움을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해결의 방식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임을 말해준다. 현실은 괴롭지만 어쨌거나 사필귀정의 질서가 존재할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다.

이들과 달리 <삼공본풀이>는 초월적인 원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오로지 감은장아기의 능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문제는 감은장

아기와 아버지를 비롯한 세계와의 관계에서 생기고 해결 또한 감은장 아기가 지상에서 이루어나갈 뿐이다. 초월적인 원리 없이 자아의 힘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함을 말한다면 <초공본풀이>나 <이공본풀이>와는 초점이 어긋나지 않는가 의문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 대립관계가 조선 조 누백 년의 철학적 대립을 닮아 있음을 알게 된다. <초공본풀이>의 아기씨는 문제해결능력이 없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초월적 존재의 능력이다. 주접선성은 바로 理가 인격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는 퇴계 이황이 말하는 主理論에 가깝다. 理가 기에 능동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氣는 자신을 통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理가 필요하다. 또는 일반 민중은 살아갈 방향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理와 같은 높은 존재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이해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율곡 이이는 理가 능동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폈다. 지상에서의 싸움은 氣끼리의 싸움이다. 그래서 싸움이 치열해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해결은 기가 이루어낼 수 없다. 이미 마련된 원리인 리의 기준에 따라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원강아미와 장자의 싸움 및 그 해결방법의 구도와 같다. 원강아미와 장자의 싸움은 지상적인 것이다. 지상적인 욕망과 부도덕한 욕망의 희생물이 되지 않고자 하는 지상적인 희망의 다툼이다. 그 싸움이 죽음에 이르는 데도 초월적인 존재가 개입할 여지는 없을 정도로 치열하다. (<초공본풀이>의 아기씨의 죽음에는 치열한 싸움이 없다는 점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해결책은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규범이다.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응징과 복수가 있어야 하고 불합리한 죽음은 되돌려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범이 리라는 것이 이이의 理 개념이다. 氣의 다툼의 현실적 근거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리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기론적 이기이원론이다.

이에 대해 주기론의 줄기찬 반론이 있었다. 理는 능동적인 힘도 없을 뿐 아니라 사회가 나아가야 할 규범도 아니다. 규범이라는 것이 어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리는 기의 움직임에 대하여 사후에 정리되는 개념일 뿐이다. 기가 움직인 것을 리라고 한다. 초월적인 규범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다툼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다툼은 있게 마련이고 다툼 속에서 해결도 있게 마련이다. 氣의 운동은 비약을 가능하게 한다. 뜻밖의 해결이 늘 가능하다. 해결이 되면 그것이 理라고 할 수 있다. 감은장아기는 다툼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사회적 규범에 따른 대답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기운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여 갈등을 일으킨다. 언니들처럼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 대답을 하고 편안히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한다. 감은장아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생긴 갈등을 자신에 대한 신뢰를 통해 해결해나간다. 갈등은 있었지만 결국은 잘 해결된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다시 거지가 되고 장님이 되는 불행이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과정에서의 갈등과 대립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인 측면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화합과 갈등 대립과 다시 화합과 다시 대립, 그것이 사물과 세상이 움직여나가는 방식임을 알아야 한다. 갈등이나 대립이 없는 세계는 없다. 그것은 망상이다. 갈등과 대립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 나은 본질적인 화합을 이루어나간다는 것이 주기론의 주장이다.²⁷⁾

이것은 세상을 보는 세 가지 큰 틀이다. 세 가지 다른 이야기를 통하여 세 가지 다른 세계관을 보여준다. 철학사의 큰 주제를 문학을 통하여 구체화하여 제시했다. 이를 곳의 담당자나 참관자들이 의식했을 리는 없다. 그러나 철학은 용어로 규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개념 규정 이전에 세계를 보는 시각으로서의 철학은 언제나 있어왔다. 이 세

27) 이에 대하여 유학의 이기철학보다는 무속이나 민간신앙을 통해 사상적 성격을 찾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속이나 민간신앙의 사상은 위와 같이 세 가지 범주를 체계적으로 해명하는 일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이미 이기철학을 통해 문학 갈래와 서사문학을 해명하는 성공적인 연구가 있었기에 여기서는 이를 따랐다. 앞으로 무속이나 민간신앙의 사상 또한 더 정밀하게 체계를 갖추어 구비문학에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편의 서사시가 조선조 이기철학의 세 가지 시각과 맞물린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 세 서사시를 한 세트로 삼아 초공 이공 삼공이라고 하나의 항렬로 이름 지은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의식 이전의 차원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6. 맺음말

처음에 노가단풍 아기씨의 수동성과 감은장아기의 능동성의 대립에 초점을 맞추어 세 편의 서사시의 문학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사이에 <이공본풀이>의 원강아미가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여주인공의 그러한 특성은 그들이 맞부딪히는 현실과 맞물려 있음을 보였다. 원강아미가 맞는 현실적 고난을 통해 곳의 담당자들과 참관자들이 경험했을 현실의 폭력과 부도덕이 부각되고 이의 양편에 <초공본풀이>의 수용적 태도와 <삼공본풀이>의 능동적 태도가 갖는 의미를 찾아보았다. 원강아미처럼 객관적인 현실 인식이 필요하면서도 감은장아기처럼 자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성들이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설화를 수용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음을 보였다. 신화와 민담을 수용하면서 이들은 현실의 고난을 더욱 부각시켰다.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자아의 능력에 대한 신뢰라는 민담적 가능성으로 제시되었다. 우주와 세계를 구성하는 보다 질서가 있다는 큰 틀 속에서,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실세계를 냉정하게 인식하면서, 동시에 자아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갖는 것이 삶의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이렇게 복합적인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 편의 이야기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는 나아가 조선조의 쟁점이었던 리기철학과 맞물리기도 한다는 점을 살폈다. 지상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초월적 존재의 원리

에 기대는 <초공본풀이>와 이황의 주리론, 지상의 문제는 지상의 문제로 대립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사회 규범으로서의 리를 제시하는 이이 이 철학처럼 원강아미와 장자가 대결하고 원론적인 해결이 주어져서 기대를 어긋나지 않게 하는 <이공본풀이>, 초월적 원리나 사회적 규범 대신 자아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표면에 내세우는 <삼공본풀이>와 서경덕이나 최한기의 주기론이 상당한 정도로 닮아 있음을 해명했다.

문학을 통해서 현실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철학적 원리의 탐색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제주도 큰곳에서 대표적인 서사시인 초공 이공 삼공 본풀이가 하나의 세트로 묶여서 이런 점을 탐색하고 있었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하나씩만으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없다. 물론 이 이유가 이들을 하나로 묶은 원래의 의도라고 할 수는 없다. 우선 가능한대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한 것뿐이다. 그러나 시도치고는 발견의 의의가 크다. 거의 무학이었을 곳 담당자와 참관자들이 이 세편의 문학을 이렇게 깊이 있게 향유했다는 것은 구비문학의 문학적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참고문헌

-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문학연구』 7, 우리어문학연구회, 1988, 255~340면.
- 김영숙, 「삼공본풀이의 서사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44집, 2000, 35~55면.
- 김진영, 「안락국태자전승의 무가적 전개」, 『고소설연구』 제2집, 1996, 423~449면.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383면.
- 신연우, 「상전 속인 하인 설화의 사회성과 신화성」, 『우리 설화의 의미 찾기』, 민속원, 2008, 74~93면.

-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제59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233~262면.
- 염원희, 「무속신화의 여신 수난과 신 직능의 상관성 연구」, 『한국무속학』 제20집, 한국무속학회, 2010, 305~333면.
- 이수자,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문화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제10집, 1993, 13~65면.
- _____, 「한국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과 신화적 의미」, 이화어문학회 편, 『우리문학의 여성성·남성성』(고전문학편), 월인, 2001, 9~40면.
- _____,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1~500면.
- 장주근, 「제주도 신방의 본풀이」, 『한국의 향토신앙』, 1~260면.
- _____,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1~290면.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1~472면.
- _____, 『한국문학사상사시론』(2판), 지식산업사, 1998, 1~478면.
-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 148, 국어국문학회, 2008, 91~148면.
- 현승환, 「삼공본풀이의 전승의식」, 『탐라문화』 13호, 탐라문화연구소, 1993, 31~50면.
-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1~859면.



Abstract

Literary and Philosophical Merit of <Chogong · Igong ·
Samgong Bonpoori>

Shin, Yeon-woo

No one knows why the three main Jeju shaman epics, <Chogong · Igong · Samgong Bonpoori>, are arranged orderly this way as now, Cho - 1, I - 2, Sam -3. No other shaman epic has the name like those.

It occurred to me that the performers and listeners are almost women and they could take part in formation of the story as well as the rituals.

There are three heroines, one in each story, and let's focus on their hardship-overcoming. Kameunjang Agi in <Samgong Bonpoori> conquers the hardships under her own steam. Wongang Ami in <Igong Bonpoori> shows her will when she has to sell herself to the rich family and resist the rich man's violation. Nogadanpoong Agissi in <Chogon Bonpoori> is so passive that she could only tolerate. These three epics suggest the three types of women; passive only, partly active, and initiative.

There are three attitudes for women towards the world. At first we face the world so big and strong that we can not grasp or handle the problems by individual capabilities. Then how could we survive in this world? The answer is Wongang Ami, who understands the problems objectively and seek the answer in her own way. This is the best and possible way in reality. However,

Wongang Ami was mistreated and killed eventually. Is rational understanding the solution?

Anyhow objective understanding and rational solution will avail nothing at all, there is another way of Kameunjang Agi, who has the confidency in herself and live a brave life. Many women like her actually gained the amazing achievement. Infinite trust in themselves can make jump in life.

I also explained a close correspondence between the three shaman epics and the Neo-Confucianism in Joseon Dynasty.

Key words: <Chogon Bonpoori>, <lgong Bonpoori>, <Samgong Bonpoori>, women performers/listeners, attitudes towards the world, Neo-Confucianism

논문투고일: 2010.9.30 / 심사완료일: 2010.11.10 / 게재확정일: 2010.11.18

K C I

к с і